

동방신기 재중-유천 日 남아 '개별활동'

입력 2009. 8. 11. 07:58 · 수정 2009. 8. 11. 07:58



최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가 멤버 별 활동을 시작했다.시아준수와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8월9일 귀국했다. 하지만 영웅재중과 믹키유천은 일본에 잔류, 현지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방신기는 8월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9 친구 불꽃축제 대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전날인 5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바 있다. 일본에서의 스케줄을 마친 후 일부 멤버만 귀국해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일본에 남은 영웅재중과 믹키유천은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29번째 발표하는 싱글 '컬러스-멜로디 앤 하모니' 활동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은 일본 힙합 듀오 엠플로의 10주년 기념 한정 앨범 '빈 소 롱'(Been so long)에 참여, 개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방신기의 일본 내 활동은 현지 소속사 에이벡스가 맡고 있다. 에이벡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양측의 소송에도 일본 활동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동방신기는 도쿄(22,23일), 오사카(29,30일)에서 차례로 열리는 에이-네이션 공연과 오는 9월과 10월로 예정된 중국 공연도 정상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